

지난 1학기 캡스톤디자인 챔피언스 리그에서 대상을 수상한 '요게미들'팀의 팀장을 만나 그들이 막걸리 요거트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본다.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1인 가구의 음식, 심리, 주거 등을 들여다본다.

# 대학주보

## 전정대 학생회장, 제휴 수익금 투명성 논란으로 '사퇴' 결산안 공개되지 않는 제휴 수익금 관련 명문화 필요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채형 기자 leechaehyeong0107@khu.ac.kr

# 전자정보대학(전정대) 이유찬(전자공학 2023) 학생회장이 외부 업체 제휴 지원금 등의 공적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대표자 권한 제한 징계를 받고 끝내 사퇴했다. 제휴 수익금의 투명한 결산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구성원 불신도 커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업체 제휴와 지원금 수령 절차, 관련 재정운용세

칙상 문제점,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다.

### 제휴 수익금 사적 사용한 학생회장 감사위원회 징계 후 '사퇴' 결정

지난달 8일 열린 제1차 중앙재정 운용위원회의 재정부담운용심사 끝에 발족한 감사위원회는 이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을 ▲외부업체 제휴 수익금 ▲경희랜드 수익금 ▲전정대 풋살대회 참가비를 포함한 총 3,871,580원으로 판단했다. 이중 외부업체 제휴 수익금은 '강남스마일

안과'와 '유비온'에서 각 3,500,000원, 483,500원을 지원받은 금액이다. 이 씨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남스마일안과의와 제휴 당시에는 학생회비 계좌가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회비 계좌 개설 이후에도 해당 제휴 지원금은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비온과의 제휴는 계좌 개설 이후에도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전달받았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휴 지원금 중 행사 지원을 위해 사용된 232,520원을 제외한 금액은 공적 자금을 사

적 보관 및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16회에 걸친 전정대 학생회 식사 및 회식에 1,199,340원을 지출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씨는 총 192점의 벌점으로, 재정운용세칙 제30조 4항에 따라 대표자 권한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재정 전액은 중재위에 몰수 후 추후 결정에 따라 이관된다.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6일 후 이 씨는 전정대 학생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제휴수익금 관련 세칙 없어 단과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

전정대 사례에서 문제가 된 수익금은 제휴 업체 측에서 학생회의 업체 홍보 대행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11곳의 학생 자치 기구와 제휴를 맺고 있는 'BGN 밝은눈안과' 관계자는 "지원금이 나가는 이유는 홍보 대행의 목적"이라며 "단과대 학생회 측에서 저희 안과의와 제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운영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협력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 설명했다.

2면에 계속 →

## 중앙박물관 · 경희기록관 누수로 피해...옥상 방수 공사 도중 폭우로 발생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서울】 지난달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 중 건물 내 빗물 누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현재 피해 복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주 내로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물 누수는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옥상 방수층을 제거한 사이 호우가 발생해 빗물이 건물 내부로 스며든 데 따른 것이다. 지붕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방수층은 지난달 22일 제거됐다.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폭우가 쏟아지며, 빗물이 건물 내부로 스며드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도서관 4층 복도는 천장 텍스가 찢어 떨어졌고, 비닐과 양동으로 물을 받는 등의 임시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공간에는 중

앙박물관, 경희기록관, 제4열람실이 위치해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건물 내 주요 시설과 자료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박물관 구민우 학예사는 "방수공사를 하면 일부 물이 새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진열장 위에 비닐을 쳐놓은 상태"라며 "중요한 유물은 안전한 곳으로 빼놓아서 누수로 인한 유물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암사동 출토 빗살무늬토기, 미륵불좌상, 연꽃무늬 수막새 등 국보급 문화재도 전시돼 있다.

경희기록관 남기원 차장 역시 "조금이라도 물이 새 것을 방지해 미리 중요 기록물은 수장고에 보관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며 "다만 사무공간 쪽은 비가 섰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측도 열람실 피해는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4층 복도는 천장 텍스가 찢어 떨어졌고, 비닐과 양동으로 물을 받는 등의 임시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김유경 기자)

김지영 차장은 "제4열람실에서 누수가 확인됐으나 크게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관 수장고나 서고 쪽에서는 이번 비로 인한 누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4열람실에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에어컨 모퉁이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관리팀 김경태 팀장은 "최대한 장마 기간을 피하고 개강에 맞춰 공

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최선이었다"며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리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총무관리처 한덕영 처장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서와 자주 만나며 대면으로 소통하고,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누수 피해 복구 논의가 이뤄

지고 있다. 한 처장은 "도서관 4층 천장 텍스가 완전히 마른 후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누수 피해 발단이 됐던 옥상 방수 공사는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시설을 준비해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